

“좋은 동반자들과 즐기며 라운딩... 더위도 잊었어요”

2024 전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 대축전

화순CC서 신페리오 방식 진행
전국 골프 동호인 100여명 참가
남자부 김도형·여자부 오현화 우승

2024 전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 대축전에서 김도형(50)씨와 오현화(53)씨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2024 전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 대축전이 20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전국 골프동호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남일보와 화순컨트리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사)전일엔젤스·광주시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후원은 전라남도도와 엑스페론, 도도인터내셔널, 잭슨피자, 골프프라자가 참여했다.

이날 경기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는 골프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친목 도모 등의 취지를 살려 숨김 홀을 지정해 핸디캡을 적용하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졌다.

오전 7시부터 조별로 티업한 참가자들은 스프링-썸머 코스에서 18홀 라운딩을 진행한 뒤 순위를 가렸다.

대회 결과 김도형씨가 남자부 신페리오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도형씨는 네트스코어(총 타수에서 핸디캡을 뺀 스코어) 69.8타로 나형선(40)씨와 동타를 기록했다. 대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도형씨가 우승을, 나형선씨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의 자영업자인 김도형씨는 “작년에 이어 2번째 참가인데 평소 골프대회 나가서 즐기는 편이라 매일 연습을 열심히 했다. 평소보다 숏게임에서 느낌이 좋았고 숏 아이언으로 홀에 가까이 붙인게 주효했다”며 “대회를 마련해준 주최 측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참가해 좋은 성적 내겠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소병일씨는 70.2타로 3위를 차지했다. 김승남씨



2024 전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 대축전이 20일 화순CC에서 전국 골프 동호인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김도형(남자부 1위·앞줄 왼쪽), 오현화(여자부 1위·왼쪽에서 세번째)씨 등 수상자들과 최창식 화순CC 대표, 문병익 전남일보 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가 70.4타 4위, 김용필씨는 70.8타 5위로 뒤를 이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네트스코어 69.8타를 기록한 오현화씨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 직장인 오현화씨는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기쁘다. 신페리오 방식이라 매홀 실수하지 않고 집중해서 라운딩하다보니 평소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아이언샷이 잘 된 게 우승 원동력이었다”며 “팀내 동반자들과 즐거운 분위기로 라운딩 해서 무더위도 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70.2타를 친 기경희씨는 준우승을, 71타를 기록한 안경화씨가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71.6타를 친 심진희씨와 박은화씨가 각각 기록했다.

이날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박민수씨(68타)와

황경아씨(73타)가 각각 남녀부 데일리 베스트를 수상했다. 버디 5개를 낚은 여자부 이현주는 다버디상을, 파 15개를 기록한 남자부 서형호씨는 다파상을 각각 받았다.

이날 대회 시상식에선 우승자에게 트로피와 함께 ‘1년간 화순CC 회원 대우 증서’를, 준우승자에게 트로피와 ‘1년간 화순CC 주중회원 대우 증서’가 각각 주어졌다.

또 3위 입상자에게 트로피와 캐리어 가방이, 4위 에겐 보스턴백이, 5위에게는 골프 파우치가 상품으로 수여됐다. 메달리스트에게는 골프 파우치가, 다버디와 다파 수상자에게는 골프공 1더즌이 주어졌다. 시상 은 대회 규정에 따라 중복 상상을 제외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골프공과 전남농협 제공 쌀이 주어졌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을 대신해 문병익 이사는 “더운 날씨에도 쟁쟁한 면면을 갖춘 전국 아마추어골프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감사하다”며 “모든 참가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페어플레이와 에티켓으로 경기를 펼치며 좋은 인상을 남겨줘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주최측은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 저변 확대를 위해 ‘잭슨피자’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도 ‘채리티(Charity·자선)’ 행사를 진행했다.

대회 중 특정 파3홀을 지정해 버디가 나온 숫자만큼 잭슨피자를 불우아동시설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피자 기부는 추후 광주시 등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이뤄질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FC “안방 울산전 승리로 기선 제압”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오늘 1차전... 상대 5연승 도전



올해 코리아컵 우승 레이스에 도전하고 있는 광주FC가 울산HDFC와 3연전에 돌입한다. 광주는 이 3연전의 출발점인 이번 맞대결에서 반드시 기선 제압을 이뤄 챔피언까지 오르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21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과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을 치른다.

코리아컵 준결승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져 광주는 안방에서 1차전을 치른 뒤 오는 28일 울산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에 나선다.

광주는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울산과 격돌하게 되면서 K리그1 28라운드 홈경기를 포함, 3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팀과 8일 동안 세 차례 맞대결을 치르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다.

광주는 코리아컵 8강전 승리 직후 4연승을 달리며 신바람을 탔지만 지난 18일 강원과 원정 경기에서 일격을 당했다. 먼저 두 골을 터트리고도 세 골을 내주며 역전승을 허용했다.

하지만 코리아컵에서만만큼 확실한 자신감을 장착했다.

패배가 곧 탈락인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에서 부천과 16강전과 성남과 8강전을

모두 3-2, 펠레 스코어로 승리를 장식하며 쾌조의 흐름을 보였다.

특히 준결승 상대인 울산을 상대로 광주는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판곤 신임 감독 체제로는 첫 맞대결이긴 하나 흥분보전 감독 체제에서 최근 4연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군림했다.

울산을 겨냥할 킬플레이어로는 자시르 아사니가 주목된다. 아사니는 알바니아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유로 2024에 출전한 직후 강한 자신감과 함께 최고의 컨디션 플레이로 이정호 감독에게 중용되고 있다.

아사니를 받쳐줄 이희균과 김한길, 가브리엘 등 공격적인 자원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대의 견제를 분산할 수 있어야 더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다.

울산은 최근 최악의 흐름에 빠져있다. 최근 네 경기에서 1승 3패에 그치며 K리그1 3위까지 떨어졌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김판곤 감독 부임 후 첫 원정길에 오르게 됐다.

광주는 울산과 세 경기를 내리 치러야 하는 만큼 이번 경기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경기 흐름에 따라 남은 두 경기의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때문에 이정호 감독의 지략이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캡틴’ 박정아 “차근차근 발전하는 페퍼스될 것”



이적 후 첫 해외 전지훈련 참가
자비치·장 위와 공격 호흡 기대

지난해 4월 FA(자유 계약) 대박을 터트리며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에 합류해 시즌 도중 주장을 맡았던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가 올 시즌도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 현재 일본에서 전지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그는 발전된 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다.

박정아는 “봄 배구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정말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현재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를 베이스캠프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쿼터와 외국인 선수 1순위로 선발한 미들블로커 장 위(중국)와 아포지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크로아티아)까지 완전체로 임하는 첫 연습경기도 진행된다. 또 수비 라인에서는 국가대표 리베로 한다혜가 FA 계약을 맺으며 합류했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세터 이원정과 자유 신분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박정아가 지난 19일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열린 NEC 레드 로켓츠, 가에쓰 대학교와 연습경기 3파전에서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다.

으로 폼은 아웃사이드 히터 이예림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박정아가 마음 놓고 공격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는 “(한)다혜가 FA로 오면서 리베로 포지션이 강화됐다. 공격 커버도 언제든 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자신했다.

개인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주장은 팀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장소연 신임 감독과 소통에도 앞장서야 하고 팀 분위기를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 위치가 박정아다.

그는 “분위기는 항상 좋다.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합류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감독님과

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간의 배려에 대해서도 강조하신다”고 전했다.

박정아는 장소연 신임 감독과 선수단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해 180도 달라진 페퍼저축은행을 새 시즌에 선보이겠다는 다짐이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KOVO컵이 그 첫 선이 될 전망이다.

그는 “페퍼저축은행에 와서 해외 전지훈련은 처음이다. 주장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다”며 “저희는 도전자의 입장인 만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비시즌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만큼 새 시즌에 결과로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가와사키=글·사진 한규빈 기자